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12월 13일(수)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 참석

- 첫 국민 방문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 초청, 감사의 뜻 전해 -
- 네덜란드는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파병에 지원한 혈맹국이자
미국, 영국, 호주에 이은 4번째 전투부대 파병국 -
- 한-네 참전용사의 만남, 영웅의 제복 수여를 통해 특별한 감사 표명 -

네덜란드를 국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13, 수, 현지시간) 오후 왕궁 쓰론룸(Throne room)에서 개최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임원, 양국 정부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덜란드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의 군사원조 결정을 적극 지지하였고, 지원병 모집 시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해군은 1950년 7월 19일, 육군은 1950년 11월 23일 우리나라에 도착해 유엔참전국 중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빠르게 전투부대를 파병했으며, 횡성전투, 인제전투, 별고지 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1954년 10월 1일까지 휴전선 방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간담회장에 입장해 참석자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통해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에서 참전용사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왕에게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테오도뤼스 하버르 네덜란드 참전용사와 우리나라 참전용사 최병수 용, 린데르트 스뢰데르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부회장, 네덜란드대대 지휘관으로 황성 전투에서 전사한 故 마리누스 덴 아우덴 중령의 조카인 헨드리카 덴 아우덴 등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대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던 최병수
옹이 특별히 참석하여 70년 전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웠던 네덜란드 참전 전우들과
뜻깊은 재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참전용사인 코르트 레버르 님에게 ‘영웅의 제복’을 전달하며 특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웅의 제복’은 우리 정부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심을 전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유엔군 참전용사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김건희 여사가 미국 보훈요양원 방문 시 미국 참전용사들께 전달했으며, 7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한한 룩셈부르크 참전용사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증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우리 정부 측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욱 국방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최형찬 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네덜란드 측에서는 카샤 올룽그렌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